



만병통치약

이윤수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병원 원장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소위 당신들만의 '만병통치약' 이란 것이 있다. 한동안 아까정끼라고 하여 '머큐로 크롬' 이 그랬다. 상처 소독약인데도 불구하고 손주가 배가 아프다고 하며 배에다 발라주곤 흐뭇해 하셨다. 얼마 전까지는 중국산 호랑이가 그려진 연고를 온갖 피부병에도 만병통치약처럼 발라 주고는 피부질환을 악화시켜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요즘 시골 웬만한 집에 냉장고 없는 집이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집에 놀러가 냉장고를 열어보면 곱게 포장된 물건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놓여져 있다. 냉장고에는 맛있는 음식보다는 흰 봉지의 알약들이나 비닐포장의 한약들이 들어 있는 것을 자주 본다. 노인들끼리 겨우겨우 농사일을 해가며 지켜가는 농촌 현실에서 약이란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노인들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비대증으로 고생을 하며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수입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들을 달고 산다. 물론 정력에 좋다는 약도 포함된 경우도 있다. 시골에서는 장날이면 아직도 정력제나 만병통치약이 요란한 선전과 더불어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즐거운 약 한 가지가 늘었다. 바로 '발기유발약' 이다.

남성의 성기능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발기부전이다. 사실 남성에게 나이를 먹어서도 성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다행히 최근 발기 장애는 감기와 같이 흔한 질병이며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발기부전도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시대가 왔다. 엄격히 말하면 발기부전약이란 발기 기능을 근본적으로 고쳐주는 치료제는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던 성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 어느덧 이들은 현대를 사는 중·장년 이상 남성들의 복용약 리스트에 당당히 올라가 있다. 2·3년 전부터는 가지 수도 늘었고 국내 제약회사도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다. 진료실에는 어느 것이 더 강력하고 자신한테 맞는지에 대한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모든 약이 마찬가지로이지만 이런 약의 사용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다. 효과가 좋아 할아버지들끼리도 서로 권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생길 수 있는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의사에게 배워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먹는 약으로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또다른 치료방법을 소개해 줄 것이다.

두 달 전쯤 개인사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찾아와 발기부전에 관한 상담을 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도 해 보고 먹는 약을 계속 먹어 왔어요. 자주 오기 어려우니 100알만 처방해 주세요."

"그 많은 양을 혼자 다 쓰시게요?"

"사업하다보니 접대할 때도 아주 좋아서요."

가끔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친구끼리 주고받거나, 심지어 술집에서도 영업전략에 하나로 손님들에게 하나씩 준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이런 일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신에게 잘 맞고 안전한 지를 의사와 상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약 모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혈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질산염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해서는 무리가 될 수 있다.

발기유발 주사제와는 달리 먹는 약으로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어 약효를 발휘한다. 작용부위는 음경 내의 해면체로 내부의 혈류속도를 증가시켜 발기를 도와 준다. 음경 해면체 내부에서 '포스포디에스터라제 타입 5' 라는 효소가 존재한다. 이 효소가 작용을 하면 혈관 벽이 긴장을 풀고 안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 효소의 작용을 막아주면 음경 내의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게 된다. 최근에 나온 발기유발약물은 해면체 내부의 이 효소를 억제하여 발기를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갖는 호기심의 원동력이다. 나이를 먹으면 성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에 대한 욕구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현대의학은 발기유발 약물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음경보형물이란 수술을 통해서도 성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란 없다.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들을 맞춤치료를 하면 된다. 나이를 먹어서 그릇된 정보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혐오식품에 매달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㉞